

『醫學入門』命門 形狀의 유래와 의의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 *

Origin and Meanings of Shape of Vital Gate(命門) in *Yixuerunmen*(醫學入門)

Jo Hak-jun *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o research origin of the shape of vital gate(命門) in *Yixuerunmen* makes us understand more exactly what the author, Li Chan(李梴) thought vital gate shaped.

Methods : It's shape described in his book was compared with pictures portraying it in *Hua Tuo Xuan Men Nei Zhao Tu*(華陀玄門內照圖), one of references of his book.

Results : He reasonably modified its passing track, while explaining it according to the paintings in *Hua Tuo Xuan Men Nei Zhao Tu*. Vital gate, as he thought, was not an real organ like the other five viscera, but a cord or a tube similar to blood vessels. He believed its cord had long connections from pericardium to terminal of urethra, which went through pericardium upward, right kidney downward, right around terminal rectum down-frontward, and urethra in parallel outward.

Conclusions : He had consistent understandings for vital gate to penetrate several different viewpoints, as based on pictures in *Hua Tuo Xuan Men Nei Zhao Tu*.

Key Words : vital gate(命門), shape, origin, meanings, *Yixuerunmen*(醫學入門)

I. 序 論

‘命門’이란 용어는 『靈樞根結』에서 처음 나오지

만¹⁾, 命門學說은 『難經』 「39難」²⁾, 「36難」³⁾, 「8難

* Corresponding Author :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82-43-649-1347. Fax: +82-43-649-1702.
E-mail: palm01@hanmail.net
Received(19 October 2015), Revised(14 November 2015), Accepted(16 November 2015).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0. “太陽根於至陰, 結於命門. 命門者, 目也.”
2)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2. “謂腎有兩藏也, 其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精神之所舍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其氣與腎通.”
3)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1.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知腎有一也.”

」⁴⁾ 등에서 기원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難經』에서 命門을 臟의 하나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李時珍, 孫一奎, 張景岳, 趙獻可, 虞搏 등이 右腎을 命門이라고 여기거나 兩腎의 總稱 또는 腎間動氣를 命門이라고 여기는 등 논쟁의 발단이 되었다⁵⁾.

일찍이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命門의 形狀, 實質, 위치에 대해 『難經』을 비롯한 이전의 여러 學說을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心包가 命門이라거나 子戶, 胞門이 命門이라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공존하기 어려운 견해를 동시에 수용하였기 때문에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다.”⁶⁾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心包가 命門이라는 독특한 견해는 “李東垣, 王好古 … 李梴 등 모두의 잘못된 인식이다.”⁷⁾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 그의 學說을 따라서 문구를 약간 수정하여 인용⁸⁾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면, 許浚은 그의 命門에 대한 인식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命門에 대한 기존 연구는 命門의 위치, 실질에 대한 고찰이 대부분인데, 중국은 陳 등⁹⁾, 李 등¹⁰⁾, 魯 등¹¹⁾, 蕭 등¹²⁾, 王 등¹³⁾, 張¹⁴⁾, 張敏¹⁵⁾, 魏¹⁶⁾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국내는 命門의 기능과 역할¹⁷⁾¹⁸⁾¹⁹⁾²⁰⁾²¹⁾²²⁾²³⁾, 張景岳²⁴⁾²⁵⁾과 陳士鐸²⁶⁾의 命門學說, 命門의 形狀, 위치²⁷⁾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醫學入門』 命門 形狀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필자는 『華陀玄門內照圖』에 묘사된 命門과 『醫學入門』에서 命門을 묘사한 원문을 대조하던 중, 命門에 대한 여러 관점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였다.

이에 明代 이전의 命門學說이 李梴의 인식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다시 命門 形狀에 대해 『華陀玄門內照圖』와 李梴의 記述을 서로 비교하고, 다음으로 그가 생각한 命門 形狀의 의의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心包가 命門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알려진 程知의 命門學說과 비교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明代 이전 命門學說의 영향

『醫學入門』 이전의 命門學說이 『醫學入門』 命門 관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5. “所謂生氣之原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5) 홍원식, 윤창렬. 新編中國醫學史.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251.
6) 朴赫圭,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1(1). 1998. p.341.
7)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8)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417. “命門之系, 卽心包絡.”
9) 陳誼敬, 鄭洪新. “命門”辨析. 中華中醫學刊. 31(7). 2013.
10) 李瑞, 魯兆麟. 命門位置爭鳴的思考. 中國醫學報. 2003. 18(11).
11) 魯兆麟, 彭建中. 命門學說源流考.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2. 25(1). p.9.
12) 蕭佐桃, 唐眾瑞. 論“命門”學說. 中醫學導報. 2006. 12(5).
13) 王波, 戴小華, 孫孟林. 命門探究. 世界中醫學. 2012. 7(6).
14) 張志鋒. 腦爲命門初探. 光明中醫. 2008. 23(8).
15) 張敏. 淺析命門. 文化藝術. 2010. 권(호) 未詳.
16) 魏鳳琴. 命門的理論研究.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0. 24(5).

17) 은석민.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의학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18) 金振鎬.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19) 송지청 외 4인. 心包, 三焦, 命門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 21(2).
20) 黃元德, 金重漢. 君火相火와 命門의 關聯性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4. 제8권.
21) 申興默, 金吉萱. 命門에 관한 文獻의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2. 7(1).
22) 李鏞泰, 金完熙. 命門相火에 對한 考察. 東醫生理學會誌. 1988. 3(2).
23) 鄭吳鎭. 升降의 原動力에 關한 考察 -脾胃와 命門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1. 14(1).
24) 朴赫圭,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8. 11(1).
25) 金圭烈, 洪元植. 張景岳의 命門學說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0. 제4권.
26) 崔鐘弼, 尹暢烈. 陳士鐸 命門說의 特徵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3).
27) 신승훈, 배성철, 김기왕. 동아시아 고문헌에 나타난 정액의 생성 및 이동 경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2).

『靈樞根結』, 『難經』 이후 隋唐代 楊上善, 孫思邈 등이 命門學說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⁸⁾. 楊上善은 『難經』의 學說을 위주로 하면서도 동시에 『靈樞根結』의 ‘目이 命門’이라는 견해를 수용하였고²⁹⁾, 孫思邈은 비록 命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千金要方』에서 ‘玄宮’이 兩腎의 중간에 자리하면서 腎氣와 서로 통한다고 여겼다³⁰⁾. 그러나 『靈樞根結』의 견해와 『千金要方』의 ‘玄宮’이라는 용어는 『醫學入門』에 나타나 있지 않다.

金元代 劉河間은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右腎, 命門, 小心은 手厥陰包絡의 臟이 된다. 그러므로 手少陽三焦와 배합하여 表裏가 된다.”³¹⁾고 하여 右腎, 命門, 小心을 包絡과 동일시한 동시에 包絡 외에도 右腎, 命門, 小心이 三焦와 表裏로 配合되는 근거가 된다.

李梴이 命門을 右腎, 小心, 包絡으로 다양하게 정의했다는 점과 三焦와 表裏를 이루는 臟을 命門이라고 한 점³²⁾으로 비추어 볼 때, 그의 命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素問玄機原病式』에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 수 있다.

李東垣은 『蘭室秘藏』에서 “무릇 胞란 것은 一名 赤宮이며 一名 丹田이며 一名 命門이다. 男子는 藏精하고 施化하며, 婦人은 繫胞하여 임신한다.”³³⁾라고 하여 胞, 赤宮, 丹田, 命門을 동일시하였고, 또 『脈訣指掌』에서 “命門脈은 곧 心包絡이라.”³⁴⁾고 하여

命門과 心包를 동일시하였다. 王好古는 『此事難知問三焦有幾』에서 “包絡은 또한 三焦를 일컫기도 하니, 命門의 火가 된다.”³⁵⁾고 하여 包絡을 三焦 또는 命門火와 동일시하였다. 이 내용들은 李梴이 ‘心包가 곧 命門’이라고 주장한 직접적인 근거임을 알 수 있다.

비록 李梴이 ‘心包’를 종종 ‘心胞’로 표기하기도 하여 대체로 ‘包’와 ‘胞’의 두 글자를 구별 없이 사용하였지만 ‘心包가 命門’임을 설명할 때 굳이 ‘心胞’라고 표기한 점(『蘭室秘藏』의 원문을 따름)과 ‘心包’를 종종 ‘心包絡’ 또는 ‘包絡’으로 표기한 점(『脈訣指掌』, 『此事難知』의 원문에 따름) 등은 李東垣, 王好古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2. 李梴이 인식한 命門의 소속과 역할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命門의 形狀뿐만 아니라, 소속과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命門의 소속에 대해 “命門은 正臟이 아니며 三焦는 正腑가 아니다.”³⁶⁾라고 하였는데, ‘正臟’ ‘正腑’는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五行에 소속된 臟腑가 아니라는 점이며, 둘째는 臟腑의 고유특성과 다르다는 점이며, 셋째는 實質, 형상의 有無가 다르다는 점이다.

첫째 관점으로 따져보면, 命門이 五行에 속하지 않는 臟이므로 五行 내에 相配하는 腑가 없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三焦 역시 五行에 속하지 않는 腑이므로 五行 내에 相配하는 五腑가 없다는 점이 ‘孤府’라고 일컫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心包 역시 正臟이 아니라는 해석³⁷⁾도 가능하다.

따라서 五行 내에 相配하지 않는 臟腑는 命門,

28) 은석민.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의학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p.201.

29) 은석민.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의학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p.202.

30) 張敬文, 魯北麟. 孫思邈對命門學說發展的貢獻. 四川中醫. 2007. 25(2). p.40. “은석민.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의학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2(4). 2009. p.202.”에서 재인용.

31) 劉素素. 素問玄機原病式(劉素素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右腎命門小心, 爲手厥陰包絡之臟. 故與手少陽三焦合爲表裏”

32)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99. “命門과 三焦는 表裏 관계이니...”

33) 李東垣. 蘭室秘藏(李東垣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3. “夫胞者, 一名赤宮, 一名丹田, 一名命門. 主男子藏精施化, 婦人繫胞有孕, 俱爲生化之源. 非五行也, 非水亦非火. 此天地之異名也, 象坤土之生萬物也.”

34) 李東垣. 脈訣指掌(李東垣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

出版社. 2006. p.289. “命門脈, 卽心包絡.”

35) 王好古. 此事難知(王好古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58. “包絡亦有三焦之稱, 爲命門之火.”

36)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6. “命門, 非正臟. 三焦, 非正腑也.”

37) 윤창렬.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2). p.5.

三焦, 心包 등이 있으며, 이들은 五行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들끼리 다시 相配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둘째 관점으로 따져보면, 다른 五臟, 五腑는 모두 形狀, 실질이 각각 臟과 腑로서의 공통점, 즉 ‘藏精氣而不瀉’³⁸⁾, ‘傳化物而不藏’³⁹⁾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命門은 精氣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배설한다는 측면과, 三焦는 飲食物 대신 元氣를 전신으로 散布한다는 측면에서 臟腑의 고유특성과 약간 다를 수 있다.

셋째 관점으로 따져보면, 三焦의 形狀, 실질에 대해 ‘無形’⁴⁰⁾이라고 언급하였다는 점과 ‘形藏’과 ‘神藏’을 구분한 점⁴¹⁾과 ‘奇恒之府’와 ‘傳化之府’를 구분한 점⁴²⁾을 고려할 때, 李梴은 形狀과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을 ‘(正)藏’과 ‘(正)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李梴이 사용한 ‘正臟’, ‘正腑’이라는 용어는 ‘五行에 속하여 서로 配合를 이루고 있으며, 臟腑의 고유특성을 온전히 갖추며, 形狀, 실질이 있는 臟腑’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命門이 正臟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命門이 비록 臟의 하나로써 實質, 형체를 갖추고 있지만 五行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藏精氣而不瀉’하는 臟의 고유특성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醫學入門』 「臟腑條分」에서 五臟, 五腑 외에 「三焦」, 「命門」을 소제목으로 들고 있다는

점과 心包를 「命門」 조항 밑에 설명을 붙인 구성으로부터 미루어 보면, 그가 命門, 三焦를 臟腑의 위상으로 인식하였지만 心包는 臟腑의 하나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命門의 역할에 대해 “命門은 配成의 官이니, 左腎이 血을 거두어 精으로 化하며, 그 精이 命門으로 움직여 들어가서 감추어진다. 남자는 이것으로 精을 감추고 여자는 이것으로 胞胎를 매고 있다. … 宦官이 거세되면 또한 수염이 없는 것이 같은 이치이다.”⁴³⁾라고 하였는데, 腎은 血을 精으로 변화시키는데 반해 命門은 精을 저장, 배출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君火를 도와서 元氣를 매고 있으니, 질병으로 죽고 사는 것은 이에 달려 있다.(命門은 相火의 臟으로서 元氣가 매어져 있다. 무릇 병이 비록 위태롭더라도 命脈에 활기가 있으면 살거니와 命脈에 활기가 없으면 죽는다.)”⁴⁴⁾라고 하였는데, 命門은 相火로서 君火를 도우며, 命門에 元氣가 매여 있어서 生死가 이것으로 결정되므로 ‘命脈’, 즉 ‘命門脈’이라는 용어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3. 『華陀玄門內照圖』와 비교

『醫學入門』에서 “命門은 곧 右腎이다.”⁴⁵⁾, “心胞가 곧 命門이다.”⁴⁶⁾, “心系는 六節에 있고, 七節의

38)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21.

39)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21.

40)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82. (“三焦)雖有名而無形.”

41)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30. “神藏五. 肝藏魂, 心藏神, 脾藏意, 肺藏魄, 腎藏精與志. 以其皆神氣居之, 故曰神藏五也. 形藏四. 一頭角, 二耳目, 三口齒, 四胸中. 以其如器外張, 虛而不屈伸, 以藏於物, 故曰形藏四.”

42)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p.330-331. “他如『內經』又言髓腦骨脈膽女子胞, 六者, 名曰奇恒之府. 胃, 大小腸, 三焦, 膀胱, 五者, 名曰傳化之府. 此皆不能久留輸瀉者.”

43)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p.376. “命門爲配成之官, 左腎收血化精, 運入藏諸命門. 男以此而藏精, 女以此而繫胞胎. 男子以氣爲主, 坎水用事, 故蒸氣爲精而色白, 如帶火者, 精亦能紅. 女子以血爲主, 離火用事, 故血盈爲經而色紅, 如挾痰氣者, 經亦能白. 女人屬陰, 陰極則必自下而上衝, 故乳房大而陰戶縮也. 男子屬陽, 陽極則必自上而垂下, 故陰物垂而乳頭縮也. 蓋陽無形, 陰有質, 男子內陽而外陰, 女人內陰而外陽, 男子背屬陽而腹屬陰, 女人腹屬陽而背屬陰. 又男子督脈主事, 自背尾闕行至斷交穴止, 故血盛者感陽氣而鬚髮生. 女子任脈主事, 自小腹上行至咽喉而止, 故不上與陽合而無鬚. 宦官去勢, 亦無鬚, 一理也.”

44)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p.379. “相君火以繫元氣, 疾病死生是賴.(相火之臟, 元氣繫焉. 凡病雖危, 命脈有神者生, 命脈無神者死.)”

45)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6. “命門, 非正臟. 三焦, 非正腑也.”

옆 그 가운데에 小心이 있다.”47), “(命門은) 相火의 臟으로서 元氣가 매어져 있다.”48), “心精을 흔들면 命門을 움직여 三焦의 精氣를 吸撮하니, 이곳(精道)로부터 배설된다.”49) “下焦는 내보내는 것을 주관하니 腎間動氣가 應한다.”50) 등이 모두 命門의 形狀, 위치를 설명한 내용이다. 이는 右腎說, 心包說(小心說이 포함됨), 生殖器說, 腎間動氣說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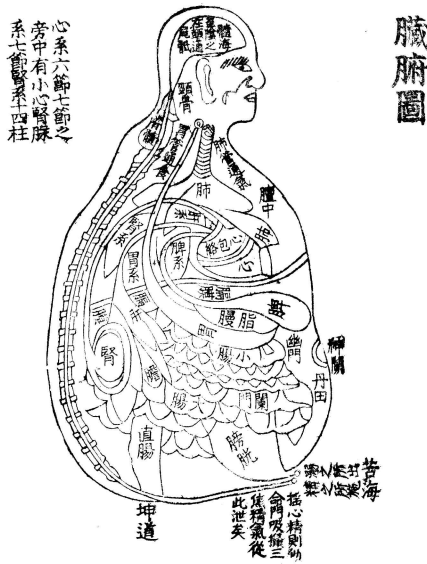


Fig. 1. Atlas of Organs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醫學入門』 「臟腑圖」에 小心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설명은 없으며, 비록 前陰의 부위 아래에 ‘命門’의 언급이 있지만 精氣가 배출되는 곳이라는 설명일 뿐, 命門 자체에 대한 언

급은 아니다. 그러므로 「臟腑圖」로부터 李梴이 인식한 命門 形狀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醫學入門』에서 命門 形狀을 자세히 언급한 곳은 「臟腑條分命門」이다. 그 묘사는 『華陀玄門內照圖』의 그림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孫煥의 『華陀玄門內照圖』의 여러 그림들과 李梴이 命門 形狀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華陀玄門內照圖』는 『華陀玄門脈訣內照圖』라고도 불리는데, 「存眞圖」 계열의 五臟圖라고 평가되고 있다51). 이 책에 「正面」, 「背面」, 「心氣」, 「肺側」, 「氣海膈膜」, 「命門」 등 그림 6종이 실려 있으며, 그 중 命門과 관련된 그림은 「背面」, 「心氣」, 「肺側」, 「命門」 등 4종이 있다.

(㉞) 命門은 곧 오른쪽 腎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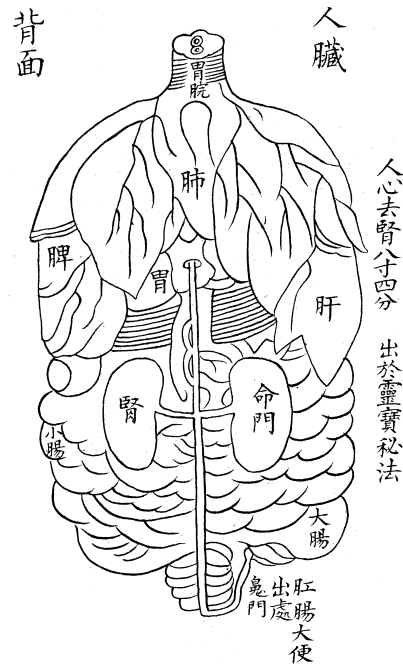


Fig. 2. The back (背面)

李梴은 命門의 形狀과 위치에 대해 “命門은 곧

46)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心胞, 卽命門.”
 47)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0. “心系六節, 七節之旁, 中有小心.”
 48)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9. “(命門)相火之臟, 元氣繫焉.”
 49)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0. “搖心精, 則動命門, 吸撮三焦精氣, 從此泄矣.”
 50)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82. “下焦主出, 腎間動氣應焉.”

51)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右腎이다. (右腎에) ‘붙어있다’고 말한 것은 命門이 正臟이 아니고 三焦도 正腑가 아니기 때문이다.”⁵²⁾ 라고 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華陀玄門內照圖』 「背面」⁵³⁾에서 兩腎 중 좌측은 腎으로, 우측은 命門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肺의 아래쪽으로부터 한 줄기의 系가 내려와 兩腎과 서로 이어져 있고 그 系가 廣腸의 하단까지 내려가서 廣腸의 우측을 지나 앞쪽에서 끝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의 하단에 “肛腸, 大便出處, 臛門”이라고 하여 肛門에 대한 설명과 “人心去腎, 八寸四分”, “出於靈寶秘法”이라고 하여 心臟과 腎臟 사이의 거리가 8寸4分이라는 내용과 이 그림의 출처가 『靈寶秘法』이라는 내용을 附記로 덧붙였다.

Fig. 2의 하단 附記 중 ‘臛’이라는 글자는 康熙字典이나 민족문화연구원의 유니코드 한자검색기⁵⁴⁾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肛門의 異名으로 사용되는 ‘魄門’의 ‘魄’과 같은 의미로 쓰인 듯하다.

『靈寶秘法』은 아마도 道家書籍 중 『靈寶六丁秘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책에 부적에 대한 그림은 실려 있으나 臟腑圖는 실려 있지 않다.

이상으로 『華陀玄門內照圖』 「背面」에서 右腎을 ‘命門’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때 孫煥은 『難經』의 右命門 學說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命門이 右腎에 ‘붙어있다’라는 표현으로부터 命門 形狀은 ‘臟’의 일반적인 형상과 다름을 알 수 있다.

(4) 心胞는 곧 命門에 해당한다.

李梴은 命門의 形狀과 위치에 대해 “心胞가 곧

命門이니, 그 經은 手厥陰이고 그 腑는 三焦이며, 그 臟은 心胞絡이다. 그 부위는 心의 아래이자 橫膈膜의 위이다. 비스듬하게 膈膜의 아래쪽으로 뻗으며, 橫膜과 달라붙어 있다. 그 곳에 누런 기름이 퍼져 싸고 있는 것은 心이고, 퍼져 있는 기름의 바깥쪽에 가는 筋膜이 실처럼 心, 肺와 이어진 것이 胞絡이다.”⁵⁵⁾라고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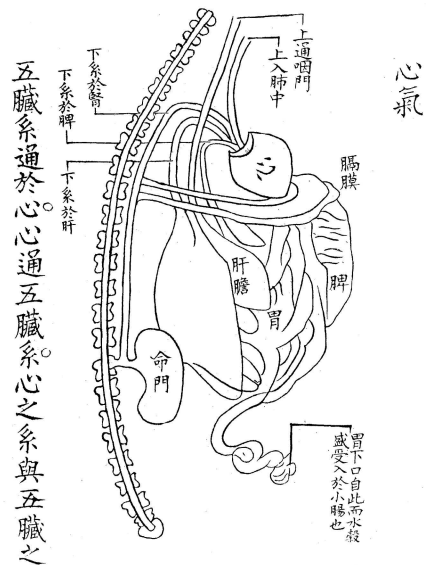


Fig. 3. Xinqi(心氣)

Fig. 3을 살펴보면, 『華陀玄門內照圖』 「心氣」⁵⁶⁾에서 右腎을 命門으로 표시하고 그 系가 脊椎의 앞쪽을 따라 命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Fig. 3의 附記에 “五臟系通於心, 心通五臟系, 心之系與五臟之(系)”라고 언급한 내용으로 볼 때, 본래 五臟系가 모두 心과 통하며, 心이 모두 五臟系를 통해 五臟과 서로 통하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命門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

52)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8-379. “命門, 卽右腎. 言寄者, 命門非正臟, 三焦非正腑也.”

53)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 自由出版社. 1976. p.20.

54) 민족문화연구원의 유니코드 한자검색기 (<http://db.Koreanstudies.re.kr/>):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자 검색기로서 한국학 관련 고서를 입력하면서 수집한 희귀한자와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베트남,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수집, 망라된 한자들을 찾아보기 쉽도록 부수/획수 검색, 결구/파자 검색, 자음/자의 검색, 유니코드 검색, 사각호마 검색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55)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心胞, 卽命門. 其經手厥陰, 其腑三焦, 其臟心胞絡, 其部分在心下橫膈膜之上. 堅斜膈膜之下, 與橫膜相粘. 其處黃脂漫包者, 心也. 其漫脂之外, 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此胞絡也.”

56)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 自由出版社. 1976. p.32.

Fig. 3은 우측에서 바라본 구도의 그림이므로 右腎을 ‘命門’으로 표시하였으며, 심으로부터 命門에 이어지는 한 줄기의 系와 그 系가 命門의 위치에서 척추에 부착되어 있음을 묘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背面」에서는 ‘(心系の 뒤쪽) - 척추와 나란히 - 命門(腎) - 항문 뒤쪽 - 항문 우측 - 前陰으로 이어지는 系’를 묘사한 데 반해, 「心氣」에서는 ‘心系 - 척추와 나란히 - 命門 - 척추에 부착된 系’를 묘사하였다.

「背面」, 「心氣」 두 그림의 묘사를 하나로 합하면, ‘心系 - 척추와 나란히 - 命門 - 항문 뒤쪽 - 항문 우측 - 前陰으로 이어지는 系’의 특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그림 모두 ‘命門 - 항문 뒤쪽 - 항문 우측 - 前陰’의 묘사는 자세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背面」은 후면도이므로 측면을 묘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心氣」는 心系와 五臟系의 관계를 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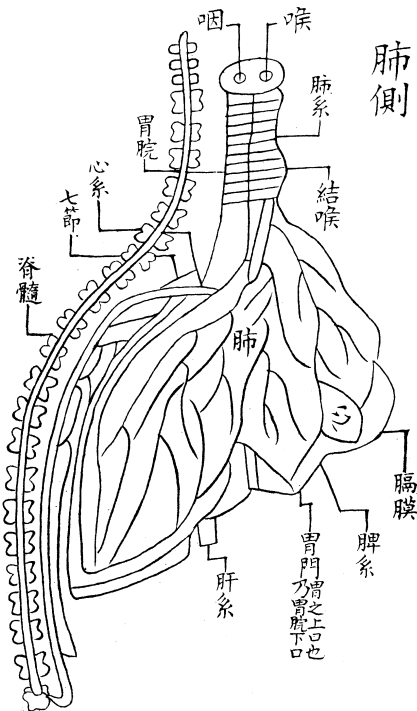


Fig. 4. Fei Ce(肺側)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華陀玄門內照圖』 「肺側」에서 六節에 ‘心系’와 ‘七節’을 표시하고 있다.

『醫學入門』 「臟腑圖」의 附記⁵⁷⁾로부터 미루어 보면, Fig 4의 ‘心系’는 ‘心系가 六節의 높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七節’은 七節의 위치와 관련된 기관, 즉 小心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李梴이 “그 臟은 心胞絡이다. … 퍼져 있는 기름의 바깥쪽에 가는 筋膜이 실처럼 心, 肺와 이어진 것이 胞絡이다.”⁵⁸⁾라고 언급한 것으로부터 볼 때, 心包絡이 心과 肺로 이어져 있으므로 결국 곧 心系가 곧 心包絡의 일부라고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華陀玄門內照圖』 「心氣」와 「肺側」에서 본래 ‘心包’를 묘사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그림을 통해 李梴은 心系를 心包絡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蘭室秘藏』의 “胞가 一名 命門이다.”⁵⁹⁾, 『脈訣指掌』의 “命門脈, 卽心包絡.”에 근거하여 李梴은 ‘胞’가 命門이라고 판단하였고, 게다가 『華陀玄門內照圖』 「心氣」에서 心系가 命門으로 이어져 있는 묘사에 근거하여 그는 다시 心胞(心包)가 命門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心包(心胞)가 곧 命門’이라는 근거는, 劉河間의 『素問玄機原病式』과 李東垣의 『蘭室秘藏』, 『脈訣指掌』, 王好古의 『此事難知』 등일 뿐만 아니라, 『華陀玄門內照圖』 「心氣」의 ‘心系가 命門까지 이어진 묘사’가 결정인 단서가 된다.

“心包가 곧 命門”이라는 견해는 『東醫寶鑑』에서 “命門之系, 卽心包絡.”⁶⁰⁾이라는 문구로 약간 변형되어 인용되었기에, 許浚은 李梴의 命門學說을 계승하

57)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0. “心系六節, 七節之旁, 中有小心.”

58)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心胞, 卽命門. … 其漫脂之外, 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此胞絡也.”

59) 李東垣. 蘭室秘藏(李東垣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3. “夫胞者, 一名赤宮, 一名丹田, 一名命門. 主男子藏精施化, 婦人系胞有孕, 俱爲生化之源. 非五行也, 非水亦非火. 此天地之異名也, 象坤土之生萬物也.”

60)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417. “命門之系, 卽心包絡.”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許浚이 『醫學入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까닭은, 『醫學入門』의 ‘心胞가 곧 命門’이라는 표현이 命門의 실질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命門’이 아니라 ‘命門系’가 心包絡임을 밝힘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이다.(‘命門系’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許浚은 李梴의 命門學說을 제대로 이해한 醫家라고 말할 수 있다.

(ㄷ) 命門系: 腎系 - 尾閭 - 廣腸의 우측 - 膀胱의 하부 - 前陰(子戶, 胞門)

李梴은 命門 形狀에 대해 “命門系는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走行하여 양쪽 腎系와 이어지고, 尾閭로 내려가 廣腸의 오른쪽에 부착되며, 前陰과 後陰 사이를 통과하여 膀胱의 아랫구멍 쪽으로 하여 앞으로 나오고, 소변이 나오는 곳과 서로 더불어 나오니, 곧 이는 精氣가 새어나오는 통로인 것이다.”⁶¹⁾라고 하여, 臟 자체의 形狀이 아니라 통로(系)의 形狀을 묘사하였다.

Fig. 5(『華陀玄門內照圖』 「命門」⁶²⁾의 附記에서 “藏各有一, 腎獨有兩, 左者爲腎, 屬水, 右者爲命門, 屬火”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難經三十六難』의 기술⁶³⁾과 매우 흡사하므로, 『華陀玄門內照圖』의 著者가 『難經』의 右命門說을 따랐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또한 우측면도에서만 보일 수 있는 腎을 ‘命門’이라고 표기한 점으로 보아도 右命門說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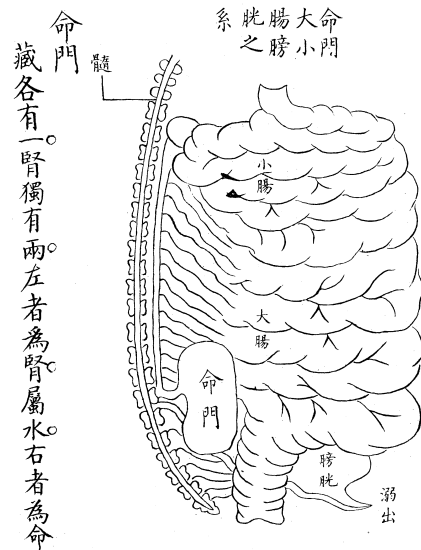


Fig. 5. Vital gate

Fig. 5(「命門」⁶⁴⁾에서 척추를 따라 내려온 한 가닥의 系가 命門으로 들어가고, 命門이 붙어있는 높이의 척추에서 ‘**별도로 한 가닥(系)**’이 나와서 아래로 내려가서 앞으로 향하여 ‘**廣腸(肛門)의 좌측**’을 지나 膀胱의 아래쪽을 지나 소변이 나오는 前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 ‘系’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Fig. 2(「背面」)에는 心系로부터 前陰까지 이어진 1개의 系를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 Fig. 5(「命門」)에는 ‘척추와 나란히 - 命門에 이어진 系’와 ‘命門 높이의 척추 - 肛門의 뒤쪽 - 肛門의 좌측 - 膀胱 하부 - 前陰으로 이어진 系’로 분리된 2개의 系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心系로부터 前陰까지 이어진 系가 한 가닥일까?(「背面」), 아니면 두 가닥일까?(「命門」)

앞서 『華陀玄門內照圖』는 「存眞圖」 계열의 그림이라고 언급하였는데, 「存眞圖」 원본은 현재 日本梶原性全의 『萬安方』에 실려 전해져 오고 있다. 따라서 『萬安方』 「存眞圖」는 『華陀玄門內照圖』의 底本

61)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8-379. “命門系, 曲屈下行, 接兩腎之系, 下尾閭附廣腸之右. 通二陰之間, 前與膀胱下口, 於澀溺之處, 相並而出, 乃是精氣所泄之道也. 若女子則子戶胞門, 亦自廣腸之右, 膀胱下口相並而受胎, 故氣精血脈腦, 皆五臟之眞, 以是當知精血來有自矣.”
62)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 自由出版社. 1976. p.40.
63)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1. “藏各有一耳, 腎獨有兩者, 何也? 然,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64)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 自由出版社. 1976. p.40.

이다.

그러므로 『萬安方』 「存眞圖」와 『華陀玄門內照圖』 「命門」을 대조하면, 心系로부터 前陰까지 이어진 系가 한 가닥인지 두 가닥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萬安方』에는 『華陀玄門內照圖』와 동일한 구조와 구도의 그림이 여러 장 실려 있는데, 그 중 「心氣」, 「命門」에 해당하는 그림이 실려 있다. 『萬安方』에 본래 그림의 명칭은 없으나, 『華陀玄門內照圖』와의 비교를 위해 본 논문에서 편의상 각각 「心氣」(『萬安方』), 「命門」(『萬安方』)으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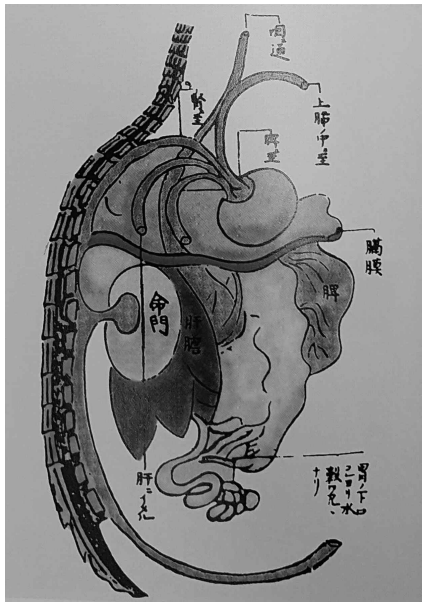


Fig. 6. Xinqi(心氣) from *Wan An Fang*(萬安方)

Fig. 6을 살펴보면, 「心氣」(『萬安方』)⁶⁵에서 心系로부터 척추의 앞쪽에 붙어서 아래로 내려와 命門으로 하나의 가지를 뺀고, 다시 척추의 앞쪽에서 아래로 내려와 前陰에서 끝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心系 - 척추와 나란히 - 命門 - 척추와 나란히 - 前陰으로 이어진 系」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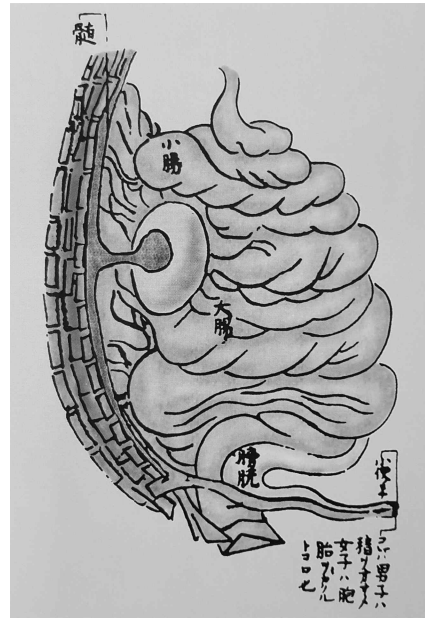


Fig. 7. vital gate from *Wan An Fang*

Fig. 7을 살펴보면, 「命門」(『萬安方』)⁶⁶에서 척추의 앞쪽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命門으로 하나의 가지를 뺀고, 다시 척추의 앞쪽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앞으로 향하여 肛門의 우측을 지나 膀胱의 아래쪽을 지나 소변이 나오는 前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心系 - 척추와 나란히 - 命門 - 肛門의 뒤쪽 - 肛門의 오른쪽 - 膀胱의 아래쪽 - 前陰으로 이어지는 系」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萬安方』의 「心氣」, 「命門」을 통해 心系로부터 前陰까지 이어진 系가 ‘한 가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華陀玄門內照圖』 「命門」에서 2개로 분리되어 묘사된 系는 본래 『萬安方』 「命門」에서 1개로 연결된 系를 잘못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Fig. 5(『華陀玄門內照圖』 「命門」)에서 그 系가 廣腸(肛門)의 ‘좌측’으로 지나가고 있는 데 반해, Fig. 7(『萬安方』 「命門」)에서 그

65)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東京. 學苑出版社. 2009. p.42.

66)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東京. 學苑出版社. 2009. p.43.

系가 廣腸(肛門)의 '우측'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華陀玄門內照圖』 속의 두 그림, 즉 Fig 2(「背面」), Fig. 5(「命門」)에서 그 系가 지나가는 경로를 묘사한 것도 서로 다르다. 즉 「背面」에서 그 系가 肛門의 '우측'으로 지나가는 데 반해, 「命門」에서 그 系가 肛門의 '좌측'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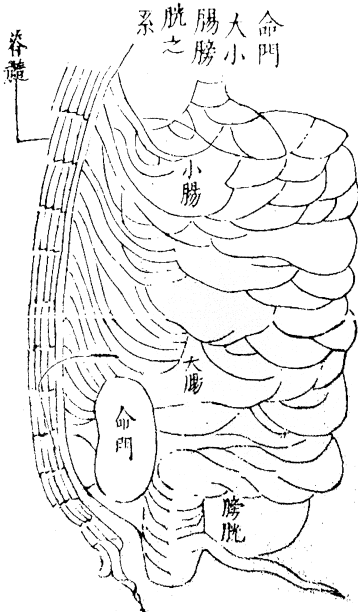


Fig. 8. Vital gate from *Jia Jing ben*(嘉靖 本)

『華陀玄門內照圖』의 또 다른 판본, 즉 明代 嘉靖 판본의 Fig. 8(「命門」⁶⁷⁾)을 살펴보면, 원본그림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그 묘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系가 肛門의 우측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華陀玄門內照圖』가 「命門」에서 系를 2개로 분리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背面」처럼 그 系가 우측으로 지나가는 묘사가 옳을

가능성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萬安方』 「存眞圖」는 『華陀玄門內照圖』의 저본에 해당되므로 『萬安方』 「命門」의 묘사가 『華陀玄門內照圖』 「命門」보다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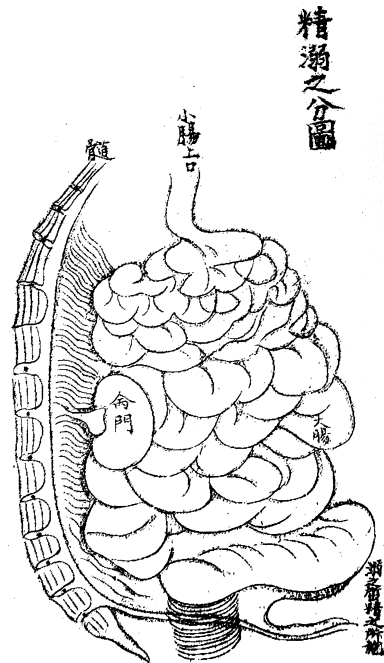


Fig. 9. Jing Ni Zhi Fen Tu(精溺之分圖)

이와 별도로, Fig. 9(『凌門傳授銅人指穴』 「精溺之分圖」⁶⁸⁾)는 Fig. 5(『華陀玄門內照圖』 「命門」)와 묘사가 매우 유사하다. Fig. 9에서 그 系가 肛門의 우측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華陀玄門內照圖』의 嘉靖 판본의 「命門」의 묘사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李梴은 『華陀玄門內照圖』에서 '心系 - 척추와 나란히 - 命門 - 척추와 나란히 - 前陰으로 이어진 系'를 발견하고서 이를 '命門系'라고 命名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는 心系, 腎系가 서로 이어진 것을 '心系'나 '腎系'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系, 즉 '命門系'로 인식한 점은 매우 독특한 발상이다. '命門系'

67)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東京. 學苑出版社. 2009. p.46. 明代 嘉靖 판본(中國中醫科學院圖書館 소장)으로 알려져 있다.

68)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東京. 學苑出版社. 2009. p.45.

라는 용어가 『醫學入門』 이전의 醫書에 발견되지 않으므로 ‘命門系’라는 개념으로 命門을 설명하는 견해는 李梴의 독창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命門의 形狀, 위치에 대한 李梴의 관점의 의의

明代에 이르기까지 많은 醫家들이 『難經』의 命門說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였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 命門의 실질 또는 위치에 대해 目, 右腎, 命門穴, 左腎 및 右腎, 兩腎, 兩腎之間, 기타 등 7가지로 분류⁶⁹⁾하거나, 目, 兩腎之間, 生殖器, 臏穴, 心包, 衝脈 등 6가지로 분류⁷⁰⁾하였고, 최근에는 命門의 현대적 연구에서 腦髓說⁷¹⁾을 추가하고 있다.

기존의 분류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시 目, 右腎, 命門穴, 左腎 및 右腎, 兩腎, 兩腎之間, 生殖器, 心包, 衝脈, 腦, 기타 등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醫學入門』의 命門學說과 관련된 평가만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命門이 右腎’이라는 學說은 『難經』 「39難」⁷²⁾에서 기인하였는데, 그 뒤로 王叔和의 『脈經』, 嚴用和의 『濟生方』,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 劉河間的 『素問病機氣宜保命集·病機論第七』⁷³⁾, 『素問玄機原病式』⁷⁴⁾, 李梴의 『醫學入門·臟腑條分·命門

』⁷⁵⁾, 吳昆의 『黃帝內經素問吳注』⁷⁶⁾ 등이 이 學說을 따랐다.

둘째, ‘生殖器가 命門’이라는 學說은 張介賓의 『質疑錄』⁷⁷⁾, 『類經附翼』⁷⁸⁾에서 男女의 子宮, 즉 남자의 精關과 女子의 產門이 命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張介賓 보다 먼저 『醫學入門』⁷⁹⁾에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뒤로 陳修園의 『醫學實在易』⁸⁰⁾과 『醫學三字經附錄』⁸¹⁾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心包가 命門’이라는 學說은 『素問·刺禁論』의 “七節之傍, 中有小心.”⁸²⁾의 ‘小心이 곧 命門’이라는 관점과 ‘小心이 心包’라는 관점이 결합된 것이다. 劉完素는 『素問玄機原病式·火類』에서 小心이 命門,

女子以系胞, 豈相反也. 然右腎命門小心, 爲手厥陰包絡之臟, 故與手少陽三焦合爲表裏, 神脈同出, 見手右尺也. 二經俱是相火, 相行君命, 故曰命門爾. 故『仙經』曰 心爲君火, 腎爲相火. 是言右腎屬火, 而不屬水也. 是以右腎火氣虛, 則爲病寒也.”

7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0. “七節之傍, 中有小心.”

76) 吳昆. 『素問吳注』(吳昆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22. “脊共二十一節. 此言七節, 下部第七節也. 其傍乃兩腎所繫, 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相火也, 相火代心君行事, 故曰小心.”

77) 張介賓. 質疑錄(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46. “命門, 居兩腎之中, 而不偏于右, 卽婦人子宮之門戶也.”

78) 張介賓. 類經附翼(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7. “且夫命門者, 子宮之門戶也. 子宮者, 腎臟藏精之府也.”

79) 李梴 編者.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8-379. “命門系, 曲屈下行, 接兩腎之系, 下尾間附廣腸之右. 通二陰之間, 前與膀胱下口, 於溲瀾之處, 相並而出, 乃是精氣所泄之道也. 若女子則子戶胞門, 亦自廣腸之右, 膀胱下口相並而受胎, 故氣精血脈腦, 皆五臟之眞, 以是當知精血來有自矣.”

80) 陳修園. 醫學實在易(陳修園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46. “凡稱之曰門, 蓋指出入之處而言也. 況身形未生之初, 父母交會之際, 男之施由此門而出, 女之受由此門而入, 及胎元既足, 復由此門而生, 故於八門之外, 重之曰命門也.”

81) 陳修園. 醫學三字經(陳修園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63. “凡稱之曰門, 蓋指出入之處而言也. 況身形未生之初, 父母交會之際, 男之施由此門而出, 女之受由此門而入, 及胎元既足, 復由此門而生, 故於八門之外, 重之曰命門也.”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0. “七節之傍, 中有小心.”

69) 陳誼敬, 鄭洪新. “命門”辨析. 中華中醫學刊. 2013. 31(7). pp.1537-1538.

70) 王波, 戴小華, 孫孟林. 命門探究. 世界中醫藥. 2012. 7(6).

71) 張志鋒. 腦爲命門初探. 光明中醫. 2008. 23(8).

72)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2. “謂腎有兩藏也, 其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精神之所舍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其氣與腎通.”

73)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劉完素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右腎屬火, 遊行三焦, 喪衰之道由於此, 故七節之傍, 中有小心, 是言命門相火也.”

74)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劉完素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2. “所以或言腎虛而下部冷者, 非謂水虛也, 所謂腎有兩枚, 『經』曰 七節之傍, 中有小心. 楊上善注『太素』曰 人之脊骨有二十一節, 從下第七節之傍, 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小心也. 『難經』言 “心之原, 出於太陵. 然太陵穴者, 屬手厥陰包絡相火, 小心之經也.” 『玄珠』言刺太陵穴曰 此瀉相火小心之原也. 然則右腎命門爲小心, 乃手厥陰相火包絡之臟也. 『仙經』曰 先生右腎則爲男, 先生左腎則爲女. 謂男爲陽火, 女爲陰水故也. 或言女子左腎爲命門者, 誤也. 『難經』止言右腎爲命門, 男子以藏精,

包絡이며 三焦와 表裏가 된다고⁸³⁾ 여겼으며, 李樞의 『醫學入門』⁸⁴⁾에서 이를 따랐다.

이 외에도 『醫學入門』 「臟腑條分·腎」에서 兩腎을 모두 腎으로 본 관점⁸⁵⁾과 「臟腑條分·三焦」⁸⁶⁾에서 腎間動氣로 본 관점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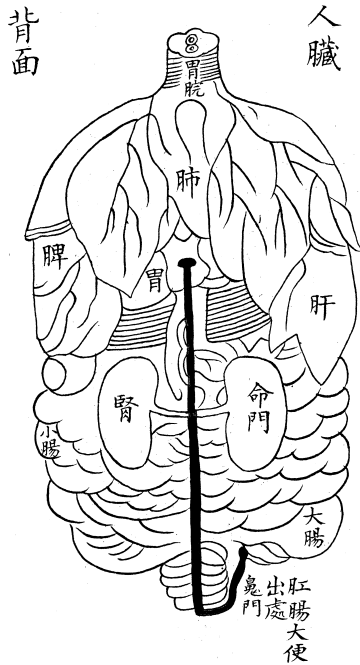


Fig. 10. Posterior view of vital gate cord(命門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李樞이 인식한 命門은 腎臟과 같은 正臟이 아니라 ‘系’라고 인식하였으며, 그 인식의 근거는 『華陀玄門內照圖』의 「背面」, 「心氣」, 「肺側」, 「命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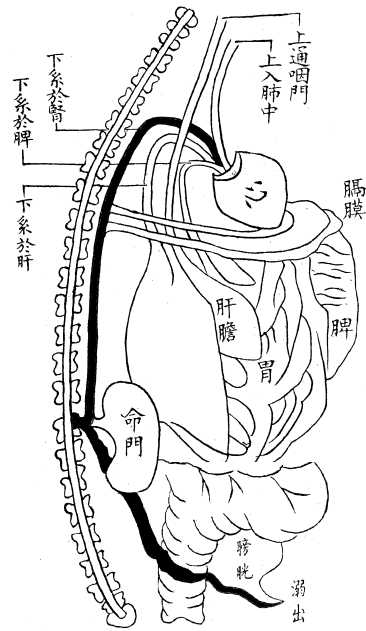


Fig. 11. Lateral view of vital gate cord(命門系)

이에 李樞이 인식한 命門系를 나타내기 위해 『華陀玄門內照圖』의 「背面」, 「心氣」, 「命門」을 수정하여 표시하면 Fig. 10, Fig. 11과 같다. 「心氣」와 「命門」을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서 측면도(Fig. 11)로 나타내었으며, 두 그림에서 ‘命門系’는 굵고 검은 색의 선으로 표시하였다.

Fig. 10,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樞은 命門系가 위로는 心包絡과 이어져 있고(心包說 및 小心說에 해당), 아래로는 右腎에 붙어있으며(右腎說), 다시 앞으로는 廣腸의 우측에 부착되었다가 尿道와 나란히 精道와 통해있다고(生殖器說) 보았다.

命門系가 포함된 관점으로 命門 形狀을 이해한다면, 李樞이 心包說 및 小心說, 右腎說, 生殖器說 등으로 다른 관점을 동시에 수용하였기에 ‘논리정연하지 못하다’는 기존의 평가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또한 ‘命門系가 위로는 心包絡과 이어져 있다’, ‘心包가 곧 命門이다.’라는 관점은 『難經』에 이르러 命門을 五臟의 위상으로 끌어올리게 된 합리성을 제

83)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劉完素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右腎命門小心, 爲手厥陰包絡之臟.”

84) 李樞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心胞, 卽命門.”

85) 李樞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69. “腎有兩枚, 左屬水而右屬火. 重各九兩, 右主女而左主男.(左右兩枚, 共一斤二兩, 男以左腎爲主, 女以右腎爲主.)

86) 李樞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82. “下焦主出, 腎間動氣應焉.”

공(예를 들어 심장의 상태로 生死를 결정함)하는 동시에 ‘命門이 正臟이 아니다.’라는 관점과도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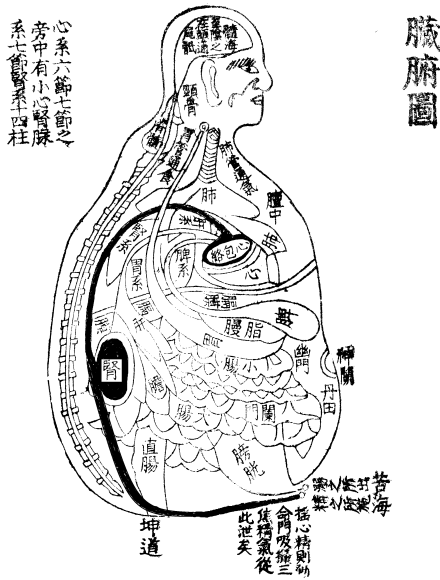


Fig. 12. Atlas of organs with vital gate cord

이상과 같이 『醫學入門』 「臟腑圖」(Fig. 1)에 본래 ‘腎 - 精道’ 사이에 命門系가 그려져 있어야만 李梴의 본뜻을 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李梴의 생각을 畫工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醫學入門』 「臟腑圖」의 오류를 바로잡아 命門系를 포함하여 표현하면 Fig. 12와 같다.

命門의 역할에 대해 李梴은 命門을 통해 精을 저장, 배출하며, 또한 命門이 相火로서 君火를 도우며 元氣가 매어있기 때문에 命門을 통해 生死를 결정한다고 기술하였다.

Fig. 12를 살펴보면, 命門系가 위로는 心包와 이어져서 相火로서 君火인 心의 정신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아래로는 腎臟과 이어져서

精을 저장하여 生殖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命門의 역할과 잘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李梴은 『華陀玄門內照圖』와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命門에 그 系가 있다.”는 독특한 관점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관점은 心包說, 小心說, 右命門說, 生殖器說 등 서로 다른 관점을 하나의 命門說로 관통하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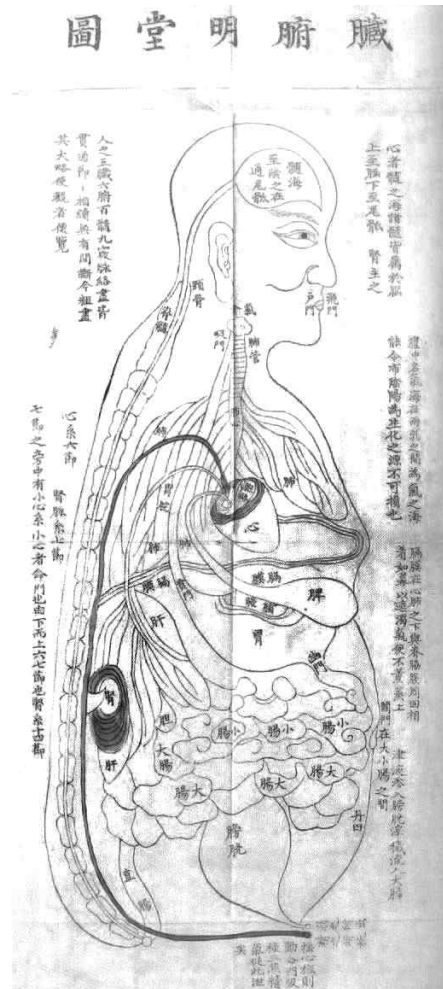


Fig. 13. Zhangfu Mingtangtu

이 결론으로부터 보자면, 기존 연구에서 “『華陀玄門內照圖』에 본래 있었던 심장에서 기시하여 신장을 거쳐 내려온 맥관이 『醫學入門』에서 완전히 사라

졌다.”⁸⁷⁾는 평가는 『醫學入門』 「臟腑圖」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평가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 즉 李梴의 命門系는 『醫學綱目』 「臟腑明堂圖」(Fig. 13)에 묘사된 정맥의 이동경로와 일치하므로 심장에서 기시하여 신장을 거쳐 내려온 맥관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生殖器說, 右命門說 등에 해당하는데, 자녀의 생산이 결정되므로 모두 ‘生命의 門戶(命門)’라는 의의와도 통한다.

5. 程知의 『醫經理解』와 비교

李梴 이후로 心包가 命門이라고 주장한 醫家로서 程知가 있다⁸⁸⁾고 알려져 있다. 그는 『醫經理解』 「手心主心包絡命門辨」에서 “소위 命門은 과연 무슨 脈인가? 가로되, 命門은 곧 心包絡이다.”⁸⁹⁾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가 말한 心包는 心包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즉 그는 “心包라는 ‘包’가 包胎를 가리키지, 心의 外膜을 가리키지 않는다고⁹⁰⁾ 보았다. 그 근거로 『評熱論』의 “包絡은 心에 屬하고 胞中에 連絡되니 心氣가 아래로 통하지 못하므로 月事가 衰少하여 제때 오지 않는다.”⁹¹⁾와 『奇病論』의 “包絡은 腎에 매어있다.”⁹²⁾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下焦에 있는 包(子宮)를 굳이 上焦에 있는 ‘心’字를 붙여 ‘心包’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여자에게 있어서는 합해 놓은 발우(鉢孟)의 형태와 같아서 胞

를 매고 있으며, 그 脈絡이 아래로 兩腎과 연결되고 위로는 心에 속하므로 心包絡이라고 부른다.”⁹³⁾라고 하였다. 즉 命門, 즉 包(子宮)의 맥락이 아래로는 兩腎과 연락되지만 위로는 心에 속하기 때문에 胞胎, 즉 子宮을 心包(絡)라고 부른다고 설명한 것이다.

心外膜, 즉 다른 醫家들이 心包絡이라고 부르는 조직을 程知가 五臟에 속한다고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心이 이미 하나의 臟이거늘 어찌 心 밖의 脂膜(일반적으로 ‘心包’라고 부르는 조직)이 다시 하나의 臟이 될 이치가 있겠는가? 肝, 脾, 肺, 腎의 系가 붙어 있는 곳에 膜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心의 外膜이 하나의 臟이 된다면 장차 肝, 脾, 肺, 腎의 膜 모두가 하나의 臟이라고 하겠는가?”⁹⁴⁾라고 하였다.

心包, 즉 子宮이 命門인 이유에 대해 “命門은 精神이 머무르는 곳이고 原氣가 매어져 있는 곳이다. 男子는 이것으로 藏精하고 女子는 이것으로 包를 맨다. 王叔和가 그 學說을 따라서 腎을 包門, 子戶라고 이름하고 脈이 右尺에 합한다고 하였다. 命門을 藏精, 繫胞하는 곳으로 삼으면 命門이 包門이 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⁹⁵⁾라고 하여 王叔和의 學說에 근거하였음을 밝혔다.

命門은 곧 胞門(包門), 子戶, 子宮, 血室이라고 보았는데 “命門은 곧 包門인데, 또 子戶이라고 하며 또 子宮이라고도 하며 또 血室이라고 한다. 道家에서 丹田이라고 하고 또 玉房이라고도 한다. 그 門이 直腸의 앞과 膀胱의 뒤에 있어서 關元, 氣海의 사이에 있다. 精氣가 이곳으로 말미암아 출입하고, 남자가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베풀기 때문에 門戶라는 명칭이 있으며, 生의 門이며 死의 門이므로 命門이

87) 신승훈, 배성철, 김기왕. 동아시아 고문헌에 나타난 정맥의 생성 및 이동 경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2). p.49.

88) 魯兆麟, 彭建中. 命門學說源流考.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2. 25(1). p.9.

89)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所稱命門者, 果何脈也? 曰命門即心包絡也.”

90)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夫包者, 包胎之名, 即子戶也. … 後人所以相沿而誤者, 由不知包之爲包, 又不知胞之非包, 而遂杜撰其說, 以包絡爲裹心外膜, 亦不經甚矣.”

9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4. “包絡者, 屬心而絡於胞中, 心氣不得下通, 故月事衰少不來也.”

9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6. “包絡者, 繫於腎.”

93)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其在女子者, 則有形如合鉢, 可以系包, 其絡下聯於兩腎, 而上屬於心, 故謂之心包絡.”

94)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夫心既爲一臟矣, 豈有心外脂膜復爲一臟之理? 肝脾肺腎, 其系屬處莫不有膜, 以心外膜爲一臟, 則亦將以肝脾肺腎之膜皆爲一臟乎?”

95)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命門者精神之所舍, 原氣之所系也. 男子以精藏, 女子以系包. 王叔和因遂其說, 謂腎名包門子戶, 脈合右尺, 夫以命門爲藏精系包之處, 則命門之爲包門無疑矣, 然以命門爲包門是也”

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命門은 곧 包門이다.”⁹⁶⁾라고 하였는데, 이는 『類經附翼三焦包絡命門辨』의 내용⁹⁷⁾과 매우 유사하다.

동일한 실체에 대해 心包絡 또는 命門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이유에 대해 程知는 “『經』에서 心包絡이라고 부른 것은 그 맥락이心に 속하기 때문이며, 後人이 命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구멍이 腎과 통하기 때문이다.”⁹⁸⁾라고 하였다.

胞門과 腎系의 관계에 대해 “三焦의 근원은 腎中에서 나온다. 兩腎의 사이에서 油膜 한 가닥이 脊骨을 관통한 것을 命門이라고 하니 이를 焦原이라고 한다.”⁹⁹⁾, “그 근원이 실제로 腎系에서 나오니, 腎系가 곧 命門이다.”¹⁰⁰⁾라고 하여 胞門, 즉 命門이 腎系와 이어져 있다고 보았다.

한편 『醫學入門』에서 心包의 위상을 臟으로 끌어 올리지 않았다는 점, 命門系가 위로 心包絡과 이어져 있다는 점, 心 또는 心包의 血滯가 月經閉塞과 관련이 있다는 점¹⁰¹⁾ 등은 程知의 견해와 비슷하지만, 李梴은 心包가 결코 子宮이 아니라 心外膜이라고 생각하였다¹⁰²⁾. 즉, 그는 下焦의 血海 또는 血室

이 여자에게는 子宮이라고 불린다고¹⁰³⁾ 하였지, 程知처럼 ‘心包’라고 부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醫學入門』에서 命門系가 아래로 廣腸의 우측에 부착되었다가 尿道와 나란히 精道와 통해있고 여자에게는 子戶, 胞門이 命門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程知가 腎系가 곧 命門이라고 한 점, 命門이 胞門(子戶, 子宮, 血室)이라고 한 점은 李梴의 견해와 비슷하다.

또한 『醫學入門』에서 命門系가 아래로 右腎에 붙어있다고 하여 右命門說을 지지하였고 동시에 兩腎이 모두 命門이라는 學說을 수용하였지만¹⁰⁴⁾, 程知는 “命門이 右腎에만 있다는 것은 그르다. 兩腎이 모두 腎이며, 兩腎의 가운데가 命門이다.”¹⁰⁵⁾라고 하여 『難經』과 王叔和의 右命門說은 부정하고 兩腎이 모두 命門이라는 관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醫學入門』에서 小心은 척추의 상부로부터 七節의 위치에 있어서 心包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지만, 程知는 小心은 척추의 하부로부터 七節의 위치에 있다고 여겨 “七節의 옆이란 腎이며, 한가운데 小心이 있다는 것은 命門이다. 命門은 心火를 도우므로 小心이라고 부른다.”¹⁰⁶⁾고 하여 小心은 心包(心外膜을 가리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醫學入門』에서 心包絡이 三焦와 짝을 이루

96)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命門者精氣之海, 死生之寶, 若命門虧損, 則五臟六腑皆失所恃, 而陰陽病變不無不至, 故許學士唯知補腎, 薛立齋獨重命門, 王太仆所謂壯水之主, 益火之源也, 故命門即包門也, 又名子戶, 又名子宮, 又名血室. 道家謂之丹田, 又謂之玉房, 其門居直腸之前, 膀胱之後, 當關元氣海之間, 以其精氣由此出入, 男女由此施生, 故有門戶之稱, 以其爲生之門死之門, 故謂之命門, 故命門即包門也.”

97) 張介賓. 類經附翼(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6.

98)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經謂之心包絡者, 以其絡屬心也, 後人謂之命門者, 以其竅通乎腎也.”

99) 楊普選, 許光輝. 小议命門之涵义和实质. 陝西中醫. 1994. 15(11). p.528. “三焦之根, 出于腎中. 兩腎之間, 有油膜一條, 貫于脊骨, 命曰命門, 是謂焦原.”

100) 楊普選, 許光輝. 小议命門之涵义和实质. 陝西中醫. 1994. 15(11). p.528. “其根源實出于腎系, 腎系即命門也.”

101)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37-338. “血滯經閉可治(女子不月, 多因勞極驚悸, 暴憂思慮, 以致心氣不足, 而後血滯不行, 不治其血, 而通其心, 可也.”

102)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心胞, 即命門. 其經手厥陰, 其腑三焦, 其臟心胞絡, 其部分在心下橫膈膜之上. 堅斜膈膜之下, 與橫膜相粘. 其處黃脂漫包者, 心也. 其漫脂之外, 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此胞絡也.”

103)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83. “膈中即上焦, 血海即下焦, 男女均有此氣海, 均有此血海. 又名血室, 乃榮衛停止之所, 經脈流會之處. 但男子則運而行之, 無積而不滿; 女人則停而止之, 有積而溢下爲月經.”

104)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69. “腎有兩枚, 左屬水而右屬火. 重各九兩, 右主女而左主男.(左右兩枚, 共一斤二兩, 男以左腎爲主, 女以右腎爲主.)

105)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以命門偏居右腎非也. 夫兩腎皆腎也, 兩腎之中命門也. … 是命門總主乎兩腎, 而兩腎皆屬乎命門.”

106)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七節之傍, 腎也. 中有小心, 命門也. 命門爲心火之祖, 故謂小心也.”

는 臟腑가 된다고¹⁰⁷⁾하고, 또 命門이 三焦와 배합된다고¹⁰⁸⁾ 하였고, 程知는 包絡이 命門으로서 三焦와 表裏가 된다고 여겨서 “李東垣이 이르되, 包絡은 一名 命門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心主, 包絡, 命門은 모두 하나의 실체를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相火라고 부르니, 心包絡은 相火의 內司가 되고 三焦는 相火의 外配가 된다.”¹⁰⁹⁾고 하여 心包가 三焦와 짝을 이룬다고 본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李梴이 말한 心包(心外膜을 가리킴)와 程知가 말한 心包(子宮을 가리킴)는 각각 가리키는 실체가 서로 다르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평가¹¹⁰⁾와는 달리, 程知의 心包(子宮을 가리킴)가 命門이라는 견해는 李梴의 心包(心外膜을 가리킴)가 命門이라는 관점에 가깝기보다는 차라리 張介賓의 子宮이 命門이라는 관점에 더 가깝다. 또한 程知의 命門學說은 男女의 精氣가 출입하고 생명이 처음 化生하는 門이라는 관점(生殖器說)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6. ‘心包가 命門’이라는 관점의 의의

마지막으로 ‘心包가 命門’이라는 관점이 타당한지 추가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命門에 대한 관점은 目, 右腎, 命門穴, 左腎 및 右腎, 兩腎, 兩腎之間, 生殖器, 心包, 衝脈, 腦, 기타 등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目, 心包나 腦로 보는 관점은 腎, 生殖器, 衝脈으로 보는 관점과 비교하면 그 위치나 높이가 매우 다르다.

특히 命門이 心包에 있다는 관점은 오직 李梴만 제시하여 그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다른 관점에 비하여 적다. 따라서 ‘命門에 系가 있다.’는 관점은

心包說, 小心說, 右命門說, 生殖器說 등 서로 다른 命門說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지만, ‘李梴이 命門에 心包를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한 답은 “君火를 도와서 元氣를 매고 있으니, 질병으로 죽고 사는 것은 이에 달려 있다.(命門은 相火의 臟으로서 元氣가 매어져 있다. 무릇 병이 비록 위태롭더라도 命脈에 활기가 있으면 살거니와 命脈에 활기가 없으면 죽는다.)”¹¹¹⁾에서 찾아볼 수 있다.

‘元氣가 매어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 곧 命門의 相火’라는 관점은 ‘腎間動氣’를 가리킨 것이며, ‘相火로서 君火를 돕는다.’는 관점은 ‘心包絡의 相火가 心の 君火를 도움’을 가리킨 것이며, ‘命脈의 활기로써 생사를 결정한다.’는 관점은 ‘命門이 생명의 門戶’라는 字意를 반영한 것이다.

『醫學入門雜病提綱』에서 “腎은 相火로서 온몸에 돌아다니되 肝, 膽, 包絡, 三焦에 붙어있다.”¹¹²⁾고 하였는데, 下焦의 腎(실제로는 命門을 가리킴)에 깃든 相火가 멀리 떨어져 있는 上焦의 君火를 도울 수 있으려면, 그 相火가 왕래하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腎, 肝, 膽, 包絡, 三焦 중에서 相火가 깃들어 있으면서도 상하로 왕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臟腑는 三焦가 유일하다. 그러나 上·中·下 三焦는 相火가 왕래하는 ‘통로’라고 부르기보다는 相火가 활동하는 ‘공간(機能場)’에 가깝다. 이와 같은 관점은 『醫學入門臟腑總論』에서 “대개 風寒은 아래에 있고 燥熱은 위에 있으며, 濕은 중앙에 있되 火는 유독 그 사이를 돌아다닌다. … 火가 쇠택하면 寒濕이 되고 火가 성하면 燥熱이 된다.”¹¹³⁾라는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李梴은 이미 命門系가 위로는 心包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腎系를 통해 右腎에 붙어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命門系야말로 腎에 깃든 相火가 위로 올라

107)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其腑三焦, 其臟心胞絡.”

108)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81. “命(門)合三焦.”

109) 程知. 醫經理解.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2015년 9월 11일 검색. “東垣云: 包絡一名命門, 故心主也, 包絡也, 命門也. 一言而三名也, 而謂之相火, 心包絡爲相火之內司, 三焦爲相火之外配.”

110) 魯兆麟, 彭建中. 命門學說源流考. 北京中医药大学学报. 25(1). 2002. p.9.

111)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p.379. “相君火以繫元氣, 疾病死生是賴(相火之臟, 元氣繫焉, 凡病雖危, 命脈有神者生, 命脈無神者死.)”

112)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41.

113)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31.

가서 君火를 도울 수 있는 ‘통로(系)’를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心과 腎의 相交를 통해 精氣가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心包와 腎을 잇는 ‘系’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心包와 腎을 잇는 ‘命門系’는 診脈 理論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李梴은 『醫學入門』 「臟腑定位」에서 左寸의 火(心, 小腸)는 右尺의 火(命門, 三焦)에 이어지고, 右尺의 火(命門, 三焦)는 右關의 土(脾, 胃)를 생한다고¹¹⁴⁾ 하였는데, 여기에서 左寸의 火(心)와 右尺의 火(命門)가 이어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를 일반적인 관점으로 추측하면, 左寸과 右尺에 각각 배속된 臟, 즉 心包와 右腎(命門)의 五行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命門系’라는 관점으로 보면, ‘命門系’가 心包와 右腎을 잇는 역할을 하여 心包와 命門이 동일한 臟이기 때문에, 左寸과 右尺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동일한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학의 관점으로 보아도 ‘心包’와 ‘元氣로서의 相火’는 生死를 결정하는 핵심(生命의 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심장의 정지, 즉 心包的 기능 상실은 生死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체온의 유지, 즉 元氣로서의 相火의 기능 상실은 生死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心包說(小心說 포함)은 자신의 生死가 心包(心臟)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두 ‘生命의 門戶(命門)’라는 의의와 통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心包가 命門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의학적 이론근거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心包가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현대적 의의가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心包가 命門’이라는 관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¹¹⁵⁾¹¹⁶⁾는 재론할 여지가 있다.

114)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99. “命門과 三焦는 表裏 관계이니, 여름에 이어 왕성해지고, 右尺에 위치하는데, 깊게 눌러 命門을 살피고 가볍게 짚어 三焦를 살핀다. 脈이 돌아가는 순서로 말하자면, … 左寸의 火는 右尺의 火에 이어지고, 右尺의 火는 右關의 土를 생하며 …”

115)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寶鑑』이 ‘命門非正臟, 三焦非正腑也.’라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특이하기는 하지만

IV. 結 論

『醫學入門』 命門 形狀의 근거를 고찰하는 것은 그 저자인 李梴이 생각한 命門 形狀이 『醫學入門』 「臟腑圖」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醫學入門-臟腑條分-命門』에서 命門 形狀을 독특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묘사가 『華陀玄門內照圖』의 그림들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李梴은 『華陀玄門內照圖』의 「背面」, 「心氣」, 「肺側」, 「命門」 등 그림을 참조하여 命門 形狀을 묘사하되 右命門說과도 부합하도록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수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命門에 대해 腎臟과 같은 正臟이 아니며 ‘命門系’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命門系는 위로는 心包絡과 이어져 있고(心包說 및 小心說), 아래로는 右腎에 붙어있으며(右腎說), 다시 앞으로 廣腸의 우측에 부착되었다가, 바깥쪽으로 尿道와 나란히 精道와 통해있다고(生殖器說) 보았다.

命門에 대한 그의 관점은 心包說, 小心說, 右命門說, 生殖器說 등을 모두 수용하였기에 기존 평가에서는 논리정연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었지만, ‘命門系’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서로 다른 여러 관점의 命門說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다. 또한 心包說(小心說 포함)은 자신의 生死가 心包(心臟)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生殖器說(右命門說 포함)은 자녀의 생산이 결정되므로 모두 ‘生命의 門戶(命門)’의 의의와 통한다.

心包와 腎을 잇는 ‘命門系’는 診脈 理論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命門系가 외부로 이어지는 경로는 『醫學綱目』 「明堂圖」에 묘사된 정맥 이동경로와 일치한다.

程知의 命門學說, 즉 心包가 命門이라는 견해는

맞는 내용이 아니다.”

116)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7. “… 李東垣, 王好古와 함께 李梴 등 모두의 잘못된 인식이다. 胞絡이 命門이면 十二官을 主宰하는 것은 君主인 心의 主宰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니, 역시 心腎交濟를 관장하는 命門이 十二官을 主宰한다는 관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기존 평가에서 李梴의 命門學說과 비슷하다고 지적되었지만, 程知가 말한 心包는 사실 子宮을 가리키므로 결과적으로 張介賓의 ‘子宮이 命門’이라는 관점에 더 가깝다.

References

1. Chen Xiu Yuan. Yi Xue San Zi Jing(in Chen Xiu Yuan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2. Chen Xiu Yuan. Yi Xue Shi Zai Yi(in Chen Xiu Yuan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3. Heo Jun(author). Dong Ui Mun Heon Yeon Gu Sil(translator). (renew translated) Dong Ui Bo Gam. Seoul. Beob In Mun Hwa Sa. 2012.
4. Hong Sinsik, Yun Changryeol. Sin Pyeon Jung Gug Ui Hak Sa. Daejeon. Ju Min Publishing Co.. 2004.
5. Hong Sinsik. Jeong Gyo Hwang Je Nae Gyeong So Mun. Seoul. Dong Yang Ui Hag Yeon Gu Won. 1985.
6. Hong Sinsik. Jeong Gyo Hwang Je Nae Gyeong Yeong Chu. Seoul. Dong Yang Ui Hag Yeon Gu Won. 1985.
7. Hua Shou. Nan Jing Ben Yi(in Hua Shou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2006.
8. Hua Tuo. Hua Tuo Xuan Men Nei ZhaoTu. Taipei. Zi You Publishing Co.. 1976.
9. Huang Long Xiang(Editor). Zhong Guo Zhen Jiu Shi Tu Jian(vol 1). Tokyo. Gaku En Publishing Co.. 2009.
10. Li Chan(author). Chin Jupyoo(translator). (new translated) Bian Zhu Yi Xue Ren Men. Seoul. Beob In Mun Hwa Sa. 2009.
11. Li Dong Yan. Lan Shi Mi Cang(in Li Dong Yan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2006.
12. Li Dong Yan. Mai Jue Zhi Zhang(in Li Dong Yan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2006.
13. Liu Wan Su. Su Wen Xuan Ji Yuan Bing Shi(in Liu Wan Su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2006.
14. Wang Hao Gu. Ci Shi Nan Zhi(in Wang Hao Gu Yi Xue Quan Shu).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2005.
15. Wu Kun. Su Wen Wu Zhu(in Wu Kun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16. Zhang Jie Bin. Lei Jing Fu Yi(in Zhang Jie Bin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17. Zhang Jie Bin. Zhi Yi Lu(in Zhang Jie Bin Yi Xue Quan Shu 中).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18. CHEN Yijing, ZHENG Hongxin. Discussion on Vital Gate. Chinese Archiv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31(7).
19. Choi Jongpil, Yun Changryeol. Study on the feature of Chen Shi Duo's theory of vital gat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5. 18(3).
20. Eun Seok-min. A Historical Study on The Myeongmunsanghwa(命門相火) Theory.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4).
21. Hwang Won-deok, Kum Jung-han. Study on relation between gunhwa-sanghwa and vital gate. Journal of Korean Medical

- Classics. 1994. 8.
22. Hyukyu Park, Woongjae Maeng. Research on the comment upon Samcho(三焦 Porak(包絡) Myungmoon(命門) by Jangkyung'ak.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1998. 11(1).
 23. Jeong Hojin. Study on driving force of up and down movements - focused on pancreas, stomach and vital gat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1. 14(1).
 24. Jin Shi Ying. Wuzangtukao. Zhonghua Yishi Zazhi. 1994. 24(2).
 25. Kim Gyueol, Hong Wonsik. Literal study on Zhang Jing Yue's theory of vital gate.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1990. 4.
 26. Kim Jin-ho. Integrating Study of Kidney on Left & Life Gate on Right(左腎右命門) and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腎間動氣).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4).
 27. Lee Yongtae, Kim Wanhui. Study on sang hwa of vital gate. Journal of Physiology in Korean Medicine. 1988. 3(2).
 28. Li Rui, Lu Zhao Lin. Thought of argument about position of vital gate. Zhongyiyao Xuebao. 2003. 18(11).
 29. Lu Zhao Lin, Peng Jian Zhong. Study on the origin of vital gate. Beijing Zhongyiyao Daxue Xuebao. 2002. 25(1).
 30. Shin Seunghoon, Bae Seongcheol, Kim Kiwang. The pathways of semen described in ancient East Asian classics - focussed on the lateral Viscera Drawings.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12. 25(2).
 31. Sin Heungmuk, Kim Gilhwon. Literal study on vital gate. Journal of Physiology in Korean Medicine. 1992. 7(1).
 32. Song Ji-cheong et al.. Study On Shimpo, Samcho and Myoungmoon In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07. 21(2).
 33. Wang Bo, Dai Xiao Hua, Sun Meng Lin. Study on vital gate. Shi Jie Zhongyiyao. 2012. 7(6).
 34. Wei Feng Qin. Study on the theory of vital gate.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 of TCM. 2000. 24(5).
 35. Xiao Zuo Tao, Tang Zhong Rui. Discussion on the Theory of Ming Men. Guiding Journal of TCM. 2006. 12(5).
 36. Yang Pu Xuan, Xu Guag Hui. Small talk about the meaning and truth of vital gate. Shan Xi Zhong Yi. 1994. 15(11).
 37. Yun Changryeol. Function Disease Symptom And Organ Coordination of Tri-Energizer Based on the Materiality of Tri-Energizer.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2).
 38. Zhang Min. Basic analysis of vital gate. Wen Hua Yi Shu. 2010. unknown volume.
 39. Zhang Zhi Feng. First research on the theory that brain is vital gate. Guang Ming Zhong Yi. 2008. 23(8).
 40. Cheng Zhi. Yi Jing Li Jie. <http://www.ngotcm.com/forum/thread-28295-1-1.html> cited at September 11th, 2015.
 41. Unicode Hanja Explorer of Min Jok Mun Hwa Yeon Gu Won(<http://db.Koreanstudies.re.kr/>) cited at September 11th, 2015.

